

[후속 보도] >> 3면
천원의 아침밥

[기획] >> 4면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기획] >> 5면
군-E러닝 문제점

[인물] >> 12면
구동회 올댓스포츠 대표이사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본 하반기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향후 과제

사상이대화 학술회장 작년에는 평균 2건이었는데 올해도 그대로여서 참으로된 것만을 도서관학살위원회의
자지장학회 파이이 줄이가 더 작은 한심을 모집에 도서관학살위원회의 매리트들을 기쁘다고 말하하시
위임을 늘려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우들을 위해 일하는 가군인만큼 이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많지 않음과
생각. 지원 인원이 많다고 해주셨고 지내 나일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딱히 할 모습할 때 시간에 빨리 모집하는
것은 어떨지?

도서관학살위원장 이번 학기까지는 지내 시간에 근무 이하를 검토 예정 다음 학기부터 지내 시간에 근무

사회과학대학 학술회장 위원님들께서 인원 확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우리 지점 본교와 도서관학살위원회의 업무 특성상 총학생이라든가 많은 인원이 순찰을 다녀서
현황상에 이르지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실 없을 줄어드는 건전한 사고라고 생각. 매리트는 장마단이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 위주로
한다면 한명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마땅치 않은지? 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에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드립니다.
도서관학살위원회의 가지적인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 매리트는 장마단이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의 위주로
노력해야한다고 생각 도서관학살위원회를 하는 매리트는 장마단이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의 위주로
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미 노력하실 용어가 있으신지, 그에어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드립니다.

도서관학살위원장 학술회장의 니즈 충족이 기존의 회의 및지만 장학금들을 목적으로 통일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학살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임. 현 상황에서는
위원들에게 파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부총리생물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분들께서 같은 지점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전체와 생애표지미에서 이렇게 힘든 운

이번 전학대회에서 도서관학생위원회의 인준이 부결되면서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의 운영 현황 △운영 미비의 원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정소희 기자 09sohee@gmail.com

**우리학교 GTEP사업단,
2024 말레이시아 국제식품박람회 'MIFB 2024' 참가**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이하 GTEP사업단은 지난날 17일부터 1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 식품 및 음료 박람회 MIFB 2024(Malaysian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Trade Fair 2024)에 GTEP사업단 3팀과 6팀을 파견해 팀 전시회 활동을 전개했다.

MIFB는 Constelar Malaysia가 매년 주최하는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베이킹△어·육류△유기농 식품△음료△잡화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buyer)들이 상품과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해 교류하는 장이다. 지난해 7월이 열린 MIFB 2023은 전 세계 50여 개국의 3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약 2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며 대규모 플랫폼 품으로 가졌다.

3팀은 협력업체 '청년정교' 및 '들녘속의농부'와 함께 100% 수제 호두정과 할랄 인증을 취득한 생들기름을 선보였다. 6팀은 하늘 소' 및 밀릿과 함께 천연벌꿀 스틱과 단백질 쉐이크 및 저당 그레놀라 제품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학교 GTEP사업단

은 △부스 기획△판매△홍보를 비롯해 세계 각국 바이어와의 계약상담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윤예진(서양어·노어 20) 3팀 팀장은 “활동의 전 과정을 팀원들과 협력해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값진 경험이었다”며 “특히 바이어 컨택뿐만 아니라 스터디어 반을 조사스인플루언서와 협업시킨지 소비자 반응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통해 전 분야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을 발견시켜 나갈 수 있었고 원활한 소통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4(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2024)'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인터참코리아 (2024 InterCHARM Korea)'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호치민 식품 박람회(VIETFOOD & BEVERAGE 2024)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식품박람회(Food & Hospitality Thailand)'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정형기업교류박람회(Mega Us Expo 2024)'에도 사업단을 파견하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기업체 인사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과 이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이하 이 본부장)은 지난달 6일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교원그룹 교원비전센터에서 대학 평판도 향상 및 기업 인사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해 열린 해당 간담회를 통해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인턴십(Internship) 및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경험△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소양이 우리학교 재학생에게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기반 융복합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변화해 우리학교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채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총 40여 개 기업체 인사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 인사관계자는 “외국어를 각 기업에 적합한 직무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면 한국외대는 최고의 인재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업과 대학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인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우리학교는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양 캠퍼스 간 학제 개편을 통해 AI(Artificial Intelligence)융합대학과 Culture&Technology 융합대학 등 사회 수요에 맞는 학부를 신설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직무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관계자 간담회와 같은 학교와 기업체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대한민국 선수단을
지원해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8.28. — 9.8.



우리학교 재외동포협력센터 ‘2024 CIS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위탁 운영

우리학교는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주최하는 ‘2024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의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 연수는 지난 5일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난 25일 목요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됐다.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수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CIS지역 4개국 출신의 고령인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실력 및 교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현지에서 한국어교육의 기틀을 다지고 이끌어 가는 고령인으로 해당 연수를 통해 △교육 실습△문화 체험△역사·문화 탐방△한국어 교수법 특강△한국어교육△한국 역사·문화 교수법에 대해 △체득△체화△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면 방식의 장점 최대화에 목표를 두고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먼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매력을 아우르는 서울 및 경기 지역 탐방과 광주 및 전주 답사를 통해 지역의 향토 문화와 음식까지 체험하며 국내 다양한 지역을 누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령인 마을과 고령인 문화관 견학△독립운동가 최재형 생애 관련 특강 청취△뮤지컬 ‘영웅’ 단체 관람 등을 통해 한민



▲ ‘2024 CIS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개회식 사진 (출처: 전략홍보팀)

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교수역량UP△프로그램의 수업△사물놀이 동아리△역사 문화 교수법 실습△협창△현장 적용 교구 개발 등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채로운 대면 프로그램

이 제공됐다.

김민정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은 “CIS 한국어교사들의 우리말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잘 알고 있어 우리학교가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우리학교의 교육 전문가들이 마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재욱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장은 “우리학교는 그동안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어교육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현지 한국어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초빙△고령인 튜터(Tutor)의 현지어 지원△현장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완비해 한국의 △문화△언어△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우리학교, 제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 등급 달성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제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해 3년 주기로 종합평가가 시행된다. 우리학교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에 해당하는 제1주기 종합평가 결과 3개 등급 중 가장 높은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2022년부터 이번까지 진행된 제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립대학 총 117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4가지 등급의 교육혁신 성과 및 3가지 등급의 자체 성과관리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교육혁신 성과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고 자체 성과관리 부문 역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우리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 체제 양성’을 목표로 구성원과 혁신 가치를 공유하며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혁신의 핵심 전략으로는 △6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학생 창의성장 구현△교육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학내 지원체계 혁신△미래 사회에 대응하

는 첨단 스마트교육 플랫폼 고도화△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우리학교만의 핵심역량 강화△학과 간 벽을 허무는 융복합 교육과정으로의 혁신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과 제도 규제 완화△첨단 및 융합 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신설△학생 중심의 전공 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진행했다. 또 학생 수요에 따른 마이크로전공을 개발했으며 IR(Institutional Research) 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획득함으로써 우리학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혁신 노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모집단위 혁신 체계와 연계한 학생 전공 선택권 등 학사 운영 유연화△자체 개발한 교수역량진단 체계 성과△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략의 유기적 연계성△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고도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은 “인식은 현실을 만든다”며 “우리학교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외국어 학습에 대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 구성원들과 공통 목표를 설정하며 학제 개편 등 혁명적 변화를 끌어냈

다”고 밝혔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동안 교육혁신에 동참해 준 △교수△직원△학생에게 감사를 표하며 올해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좋은 소식을 구성원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5년간 반도체 분야 75억원 지원 사업 선정

우리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Bootcamp)’(이하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는 향후 5년간 총 75억 원을 지원받아 시스템(System)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구축△교육 프로그램(Program) 개발△교원 채용 등 물적 및 인적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진다.

우리학교 반도체 부트캠프는 △반도체전자공학부△바이오메디컬공학부△산업경영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컴퓨터공학부△AI데이터융합학부△Language & AI융합학부 총 6개 학과(부)가 협력해 IBCT(Information and Bio Communications Technology) 응용 시스템 지식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 및 실습 위탁 교육 진행△산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취업 연계△현장실습 등에 25개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기업이 전문적 협력 파트너로서 본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우리학교는 △바이오△영상△통신△AI 등과 연계된 시스템 반도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정규 및 계절학기 중에 단기 집중교육을 진행 및 지원할 계획



▲우리학교 글로벌벤처스 백년관 전경 (출처: 전략홍보팀)

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 연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은 △교육비 지원△반도체 기업 취업의 기회△장학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조경순 우리학교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단장은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학교의 의지와 부트캠프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단기 집중교육 과정 개발△반도체 교육 인프라 구축△산업체 연계 실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시스템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이번 해 기존의 전자공학과를 반도체 전자공학부로 확대 개편해 입학 정원을 증원하고 반도체 분야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을 확장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학교 반도체 전자공학부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첨단 교육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해 전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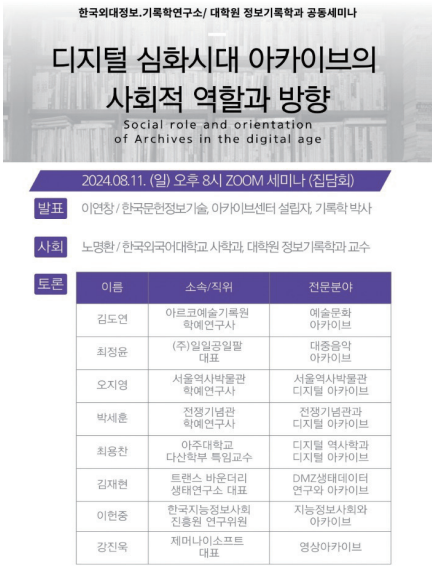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DX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아카이브 역할에 대한 세미나’ 개최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지난 11일 ‘디지털 심화시대 아카이브(archive)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명환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이연창 한국문화정보기술 아카이브센터 설립자(이하 이 설립자)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아카이브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소개한 후 각 분야의 아카이브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이 설립자는 ‘관계형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관계형 아카이브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산재

한 다양한 아카이브가 다른 아카이브와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며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설립자는 해당 세미나에서 각 아카이브의 물리적 기록들을 어떻게 디지털화 및 데이터화하여 연계 활용할 것인지도 다뤘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전문가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중음악 분야의 최정운 일일공일팔 대표 △문화예술 분야의 김도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 예술기록원 학예연구사△인문과학 분야의 박세훈 전정



▲세미나 포스터 (출처: 전략홍보팀)

기념관 학예연구사△오지영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자연과학 분야의 강진욱 제미니소프트 대표 △김재현 트랜스바운더리 생태연구소 대표△이현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노소장은 “아카이브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하는 역할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학△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등 각 분야가 어떻게 연결돼 융합되고 창발하는지 함께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였던 이 설립자는 공공기관부터 민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부문의 아카이브 활성화를 기대하며 한국문화정보기술 아카이브센터를 설립했다. 이 설립자는 지난 2022년 논문 ‘관계형 아카이브 플랫폼 연구’로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천원의 아침밥, 원활한 유지를 위해선

지난 1089호 기획 기사에선 우리학교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개요와 문제점에 대해 다뤘다. 사업이 한 학기 진행된 현재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은 어떻게 진

행되었으며 만족도는 어떠한가. △천원의 아침밥의 현황 및 보완 사항△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천원의 아침밥 현황 및 보완 사항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대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을 감소△쌀소비 문화 확산을 목표로 도입됐다. 우리학교는 지난 한 학기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아침밥을 책임졌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각각의 사업 현황은 이와 같다.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설캠에선 학생들이 몰려 배식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배식 창구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였다. 인원이 몰릴 경우 배식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이명우 설캠 총괄지원팀장(이하 이 팀장)은 먼저 “새벽에 근무할 수 있는 조리원의 선발과 배치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원 확충에 관해선 추가 인원 선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식 창구 부족 문제에 관해선 이 팀장은 “조식 시간에 배식 창구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글캠의 경우 판매량에 비해 식권의 수가 많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로 동일 사업을 진행 중인 타 대학의 경우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150개△광운대학교 100개△서울여자대학교 100개로 식권 수가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과 관련해 임은정 글캠 영양사이하 임 영양사는 “글캠의 경우 주된 소비층이 기숙사생이란 점과 통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식권 판매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며 “통학생이 아침을 먹으러 일찍 등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준비된 식수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잔반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글캠에선 천원의 아침밥 식권이 약 160매 정도 소진되어 40매 이상의 식권이 남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 영양사는 “남는 식권으로 인한 잔반의 처리 비용은 전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사 후 잔반 처리와 뒷정리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이설향 총괄지원팀 후생파트 영양사이하 이 영양사는 “일부 학생들이 잔반이 담긴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며 “남는 잔반 처리와 뒷정리들을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조리원들이 직접 치워야 하기 때문에 조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답했다.

아침밥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역시 문제였다. 설캠의 경우 △사골우거지국밥△소고기뭇국△육개장국△콩나물국밥 등의 한식이 주를 이루며 제공되고 있다. 이에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한식에만 치우친 메뉴 구성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영양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식수 공급의 제한△조리시간의 제한△한정된 예산△쌀 소비 권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식 이외의 메뉴를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미 점심 메뉴로 양식이나 일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침에만 특별히 더 많은 메뉴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희대 사무국장 A 씨는“근로장학생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메뉴 선정과 복지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결과적으로 경희대는 지난해 12월 천원의 아침밥 우수 대학 시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과제인 잔반 문제의 경우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금정구청이 주관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에서 부산대 기숙사 진리관은 역대 11개 다량배출사업장 가운데 가장 큰 감량률(22.4%)을 달성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대의 잔반 줄이기 캠페인은 △이벤트 개최△인식 개선△정보 제공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됐다. 자신이 남긴 잔반의 영향을 인지토록 하기 위해 잔반 처리량을 공지에 무심코 남긴 잔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였다.

잔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조식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 영양사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추가 조식 직원을 고용해 잔반 처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메뉴의 다양성 문제의 경우 재원 확충을 통해 선택의 폭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외엔 공식적인 후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타 학교의 경우 사업의 지속과 개선을 위한 재정적인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의 경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후원도 받고 후기를 쓰는 '내독내산'이란 게시판을 운영해 기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한 반찬들이 제공되며 동시에 메뉴의 다양성도 보장해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세

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실적 우수 학교 대상에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공식 후원 단체는 없지만 총동문회가 지난 6월 24일 기부금 전달을 진행했다고 한국외대동문회보 측에서 밝혔다. 총 86명의 동문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 1천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김춘식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이 기부금은 천원의 아침밥에 사용될 예정이며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많은 학우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잔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 후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설캠 학생식당과 글캠 학식



◆나아가야 할 방향

천원의 아침밥을 통해 우리학교가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영양사는 “새벽 근무가 가능한 조리원들의 수를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신속한 총원이 어려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난 기존 조리원들의 복지나 급여를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위에서 언급한 해결책 외에도 근로장학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작년 사업에 비해 식권의 수를 2배 이상 늘림과 동시에 배식 인원에 근로장학생을 투입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배식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선점을 즉각적으로 반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투자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연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IRP-QV) 적립금 평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0.08%~0.15%)와 자산 관리수수료 (0.07%~0.10%)가 발생하며 연 후취, 적립금 평잔 구간별 상이, 단, 가입하시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별 보수는 발생합니다. 자세한 수수료들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평잔*: 연금 납입액 평가금액의 평균값, 퇴직금 이전분에 한함)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제 제2024-1896호 (2024.0724~2025.0723)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된다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본 하반기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향후 과제

지난 4월 9일 인문과학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최됐다. 해당 전학대회에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산하 특별자치기구의 인준 및 재인준 의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도서관학생

위원회(이하 도학위)의 인준이 부결되면서 총학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의 운영 현황△총학 특별자치기구 운영 미비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의 운영 현황

총학 특별자치기구는 총학이 관장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총학 산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재 설캠 총학 산하엔 △공간운영위원회△도학위△문예갈래협의회△생활자치도서관△영상사업단△학생복지위원회△스포츠(HUFSPORTS) 등 총 7개의 특별기구가 마련돼있다. 이들은 각자 회칙에 따라 운영되며 매달 총학이 참여하는 특별기구 연석회의를 통해 설캠 총학의 방향성에 맞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글로벌 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지난 2019년 7월에 통·번역연합회를 제외한 모든 기구들이 총장 산하 기구로 전환돼 통·번역연합회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설캠 총학 특별자치기구의 인준 및 재인준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안건으로 우선 심의된다. 중운위에서 해당 기구의 인준 및 재인준 필요성을 논의한 후 전학대회에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을 받게 된다. 모든 특별자치기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당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인준이 부결되면 임시기구로 전환돼 활동이 제약된다. 이후 재인준이 부결될 시 해체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듯 인준·재인준 과정에 대해 이민지(사회·미디어 19) 생활자치도서관 관장(이하 이 관장)이 밝힌 중점적인 기준은 “해당 기구의 필요성이나 운영 미비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운영 미비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 부족△예산 부족△행정적 지원의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들은 지난해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영상사업단의 재인준 부결과 더불어 이번에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도학위의 재인준 부결로 드러났다.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운영 미비의 원인

지난 4월 9일 열린 전학대회에서 도학위는 재적 성원 74명 중 △찬성 13명△반대 35명△기권 26명으로 재인준이 부결됐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도학위의 운영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됐는데 우선 이제승(영어·영문 24) 영어대학 비례대표(이하 이 비례대표)는 도학위의 구성원 감소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사석화와 도서관 쓰레기 및 화장실 관리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실제로 이 비례대표는 “열람실을 하루 2회 순찰하며 사석화를 감시하고 철거하는 것이 도학위 구성원의 주된 업무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이들이 순찰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민석 당시 정치외교학과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나 비대위장) 또한 “관련 민원에 대해 총학과 협업체의 견을 수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러 지적 중 인원 감소에 대해 도학위장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인원이 늘면 자치회비를 더 받아야 하기에 지금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열람실 순찰 업무 방기 의혹에 대해선 도학위장은 “현재의 순찰 체계는 △수업 시간△전공△학년 등 재학생들의 생활방식이 천차만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총학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는 지적에 대해선 “총학과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학위의 재인준은 부결됐다. 또한 학우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사석화·쓰레기로 불편해하는 점을 도서관 측과 논의하길 바란다는 요청에 대해 도학위장은 “사석화와 도서관 쓰레기 및 화장실 관리로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술정보팀과 매 학기 논의 중이다”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도학위의 재인준 부결 원인에 대해 오창화(사회·행정 22)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오 회장)은 “도학위의 가장 큰 비판은 사석화 관리 등 도학위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기준이 전학대회 대의원들과 상이했기에 부결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3학년도 하반기 중운위는 영상사업단에 경고를 발의했고 전학대회에서 영상사업단의 재인준이 부결됐다. 이 결정은 도학위와 유사한 파행 운영 문제 외에도 존재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특히 ‘외대의 역사를 남긴다’란 설립 취지 반영 부족과 기존 홍보대사인 타 영상 기구와의 차별성 부족이 주된 비판 지점이었다.



▲전학대회가 진행된 인문과학관 601호

문예갈래협의회(이하 문갈협) 또한 유사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문갈협은 재인준 의결에 성공했으나 문갈협과 산하 동아리들이 설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및 동연 산하 중앙동아리와의 차별점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해당 전학대회에서 민지원(서양어·이탈리아어 22) 서양어대학 학생회장은 “매 전학대회마다 동연 및 동연 산하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고민해 오긴 하나 명확한 제안이 없다”며 “믿어달란 말만 반복될 뿐이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갈협은 “동연 산하 동아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표한다”며 “문갈협과 그 산하 동아리는 우리 학교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아리란 점에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과거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에 성공한 영상사업단의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 단장은 “작년 상반기에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해결하고자 기록물 보존 사업을 기획했다”며 “우리 학교의 역사를 영상으로 기록한다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영상사업단 기구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 단장은 운영 방향 정립 및 개선 또한 재인준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총학 산하 특별기구로서 취지에 맞는 양질의 작업물을 뽑을 수 있도록 지침이나 촬영·편집 등을 개정할 것이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학의 도움 또한 재인준 성공에 있어 주요한 역할로 작용했다. 정 단장은 “지난해 재인준이 부결된 후 학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총학과 함께 기구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다”며 “이런 논의와 그에 따른 결과물이 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렇듯 재인준이 부결된 단체가 차후의 전학대회에서 가결이 되기 위해선 전학대회에서의 피드백을 수용·반영해야 한다. 오 회장은 “각 특별기구는 전학대회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해 방향성을 수립하고 및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며 “전학대회가 상호 간의 발전적인 개선 사항들을 조율 및 논의하는 장이 됐을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는 자치회비 분배에 관한 회의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회비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각 특별기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피드백(feedback) 또한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는 지난 2022년에 특별자치기구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해당 체계는 특별자치기구 간 예산 분배와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더불어 연세대는 해당 체계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예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마련했다.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연세대의 사례 역시 특별자치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분배하는 체계를 구축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우리 학교에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는 총학생회가 비출 수 없는 곳을 비추는 가로등이다. 만약 이러한 가로등이 어두워진다면 특별자치기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의 특별자치기구들에 대한 학내 구성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말뿐인 군인 학습권, 군 E-러닝의 허점

최근 우리학교의 군 E-러닝 제도에 대한 여러 취약점이 발견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군 E-러닝(e-learning)이란 국방부와 국내 대학들이 협력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기준 171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우리학교 군 E-러닝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한계점△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우리학교 군 E-러닝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지난 6월 13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군 E-러닝 제도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교수가 뒤늦게 공지했고 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레포트와 같은 대체 시험이 가능한지 교수에게 문의했지만 불친절한 답변 뿐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해당 과목의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군 E-러닝 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군 E-러닝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강의료△공부시간△온라인포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장병들의 커리어가 군복무 기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실제로 병역법 제73조는 장병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2007년부터 군 E-러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장병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부대 내에서 대학 강의 및 일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의 경우 수강료의 80%를 국방부에서 지원해주고 일반 강의는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일반 강의는 △점점고시△어학△자격증△취업△IT/OA와 관련된 강의가 있으며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공한다.

우리학교도 2020년부터 군 E-러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인들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지만 기말시험이 대면이거나 대체 시험을 하려해주지 않는 일부 교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군인들은 △근무△비상상황△훈련 등의 이유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 E-러닝 강의의 시험 형식이 대면이라면 이에 맞춰 휴가 사용이 어렵기에 성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군 E-러닝 강의는 대체 시험 및 온라인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해당 강의의 A 교수는 ‘대체 레포트 제출 시 C 학점만을 부여한다’고 통지했을 뿐 다른 구체 수단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군 복무 중인 일부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군 E-러닝 강좌의 수가 매우 적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1학기 군 복무 중 원격수업 학점인정 안내’에 따르면 장병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는 정규학기 온라인 강좌다. 즉 강의시간표에 온라인으로 표기돼 있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의 온라인 강좌 개수는 교양 강의 2개며 각각 동유럽·발칸 문화의 이해와 체육(운동과 건강)이다. 한편 2024년 2학기 글로벌캠퍼스의 온라인 강좌 개수는 교양 강의 4개며 각각 △동아시아의 남북문명교류의 이해△미시세계의 과학△아프리카 문화의 이해△언어학과심리실험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라사랑포털에서 참고한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의 사례를 보면 2024년 1학기에 개설된 군 E-러닝 강좌 개수는 16개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의 군 E-러닝 강의 수는 평균 약 18개로 우리학교보다 약 6배 정도 많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군 복무 중인 권민혁(상경·경제 23) 씨는 “개설된 강의 수가 너무 적어서 수강신

청 시 많은 군인들이 몰린다”며 “사실상 군 E-러닝 강의 신청에 성공하기 어렵고 선택의 폭도 좁다”고 언급했다.

물론 교양강의와 전공강의를 합하면 군 E-러닝 가능 강좌의 수는 2024년 2학기 기준 서울캠퍼스 7개와 글로벌캠퍼스 12개로 약간 늘어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공 강의는 교양 강의에 비해 시험 및 과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과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수강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군장병들의 모습

자신의 전공이 아닌 강의는 수강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권 씨는 “장병들이 훈련을 받으며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벼작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복무 중 군 E-러닝 강의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학기 군 E-러닝 최대 수강가능학점은 6학점이다. 타 대학의 사례를 보면 △고려대학교는 18학점△서울대학교는 12학점△시립대학교는 12학점△연세대는 24학점△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는 12학점이며 또한 총학이 지난 6월 28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평균은 11.25학점이었다. 즉 대부분의 서울 소재 대학교들이 우리학교보다 군 E-러닝 최대 수강가능학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한계점

지난 학기 군 E-러닝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총학은 ‘군 E-러닝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먼저 군 E-러닝 제도를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학교 부처 및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고 현재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총학은 “지난 학기의 경우 먼저 우리학교의 군 E-러닝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타 대학 현황과 비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또한 군 E-러닝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군 E-러닝 제도의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법 제73조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학교 학칙엔 군 E-러닝 제도를 통한 장병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특히 장병을 대상으로 한 대체 시험이나 시험 연기를 의무화한 별도의 학칙이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교수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즉 군 E-러닝 제도를 이용하는 장병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현재로서 교

수 개인의 재량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군 E-러닝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군 복무 중인 마채운(아시아-이란어 22) 씨는 “군 E-러닝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았다”며 “군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니라면 남학생들도 알기 어려운 제도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총학은 “군 E-러닝 제도가 제아무리 개선돼도 교수와 학생 구성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허물만 좋은 제도로 퇴색될 것이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서울캠퍼스 기준 교양 강의 2개와 글로벌캠퍼스 기준 교양 강의 4개에 불과한 군 E-러닝 강의의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학교의 군 E-러닝 강의 수는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로 인해 수강신청 경쟁률이 매우 높고 수강을 원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장병들이 많아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군 복무 중인 수강생에게 대체 시험 및 시험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학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기 위해선 학교 및 교수 측의 의견이 먼저 종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열린사이버대학교(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이하 OCU)를 활용하는 것은 군 E-러닝 강좌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학교는 학기 중에 개설되는 온라인 강의를 군 E-러닝 강의로 지정한다. 그러므로 군 E-러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별도로 우리학교 온라인 수업을 수정해야 하므로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는 OCU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설된 강의 중 시립대가 인정하는 강의만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CU는 2001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대학으로 온라인으로 대학 강의를 제공한다. OCU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는 온라인 강의기 때문에 시험이나 과제와 관련된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다. 따라서 시립대는 OCU를 통해 군 E-러닝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강의개수△비용△수강신청인원 등 많은 면에서 학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이미 우리학교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군 E-러닝 제도 개선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10일 작성된 중대신문 기사에 따르면 중앙대는 작년에 군 E-러닝 수강정원이 총 400명으로 매우 많았음에도 올해 장병들의 군 E-러닝 수요가 증가하자 수강정원을 48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 생활 중에도 학업을 이어가려는 장병들의 요구에 맞춰 대학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군 E-러닝 제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학교도 학생들과 교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배울 수 있었던 힐링 리투아니아

나는 이번 해 1학기에 리투아니아(Lithuania) 제2도시인 카우나스(Kaunas)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원래 미국을 지망했으나 유럽 여행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더불어 물가가 저렴한 이유도 리투아니아를 신선했다. 처음엔 잘 모르는 이 나라로 떠나도 될지 고민했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금은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카우나스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도시이다. 학교 건물 및 도서관은 신식이며 재학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한편 삼트는 하늘△반짝이는 분수대△푸른 강이 어우러진 등듯 길도 아름답다. △빌뉴스(Vilnius) 시내△카우나스 교외△카우나스 시내에 있는 3가지 기숙사를 선택순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난



종강 이후 수도권 빌뉴스로 이사해 리투아니아에서의 삶을 다방면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아름답고 편안한 주변 환경△적은 학점△학생 이방인△한정된 파견 기간 네 가지 요소가 리투아니아에서의 날 여유롭게 했다. 특히 학생이란 안정된 신분은 내게 주어진 여유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했다. 리투아니아에는 한식당이 없어서 기숙사에서 요리를 자주 했는데 각 재료의 숨은 맛을 알아가며 날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과정이 행복했다. 심지어 물가도 저렴해서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영화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의 주인공처럼 휴식하고 싶다면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리투아니아를 추천하고 싶다. 편하고 아름다운 환경 아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던 행복한 날들이었다.

카우나스와 빌뉴스 공항까지 가는 교통편도 저렴하고 편리한 리투아니아는

유럽 여행의 좋은 거점이었다. 젊고 체력이 좋을 때 학생 혜택도 받아 가며 걱정 없이 학교생활과 유럽 여행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다양한 나라의 교환학생△여행하며 만난 사람△현지 친구 등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던 것을 깨달았고 너무 이등비등 살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에만 매달려 숨 가빠하기 보단 느리더라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개월 동안 12개국을 여행하며 각국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최지윤(중국 · 중외통 20)



프랑스

<야간비행>

- 삶을 건다는 이에게 보내는 위로 -



소설은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할 때도 있지만 그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생텍쥐페리(Saint-Exupéry)의 '야간비행'이 바로 그러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사랑△의무△용기△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 확정지어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야간비행'이지만 칙칙 같은 밤하늘에 비친 별들 속에서 야간비행을 하며 끝없는

생각에 잠기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길 바란다.

리비에르(Rivière)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항공 우편국의 국장이며 오가는 모든 우편 비행기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엄격한 사람이며 우편 항공기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운행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한다. 그는 “내가 엄격하게 굴면 사고는 줄어든다”며 “책임이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에게 엄격히 적용될 때 비로소 야간비행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파타고니아(Patagonia)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태풍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무선 통신이 끊기고 기름도 바닥났기 때문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종사인 파비앵(Fabien)은 용기를 잃지 않고 위기를 헤쳐 가려 노력한다. 그러나 육지의 빛을 찾아 해뒀던 그는 결국 빛나는 별들 사이로 끝없이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다. 수많은 별들 속에서 그는 “너무나 아름답군”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기에 별들 사이에서 죽는 것을 원했고 그는 그렇게 삶을 끝낸다.

그럼에도 리비에르는 다음 날 밤 우편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매일밤 태풍이 오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길을 개척해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리비에르의 의무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정확한 시간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야간비행을 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돈△명예△사랑△임무△꿈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외로운 야간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리비에르처럼 매일 철저히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눈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면 어둠 속 빛나는 별들이 보일 것이다. 파비앵은 이런 별들을 사랑했고 야간비행 자체를 사랑했다. 독자들이 소설 속 두 주인공처럼 인생의 야간비행을 하더라도 주변에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별들이 존재함을 깨닫고 조금은 위로받길 바란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9.25(수) ~ 10.08(화)	2024.11.06(월) ~ 11.20(수)
고사장 발표	10.16(수) 15:00	11.27(수) 15:00
면접전형	10.19(토) 10:00 예정	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1(목) 15:00	12.1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4(월) ~ 11.08(금)	12.16(월) ~ 12.2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출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접수 시기에 따라 특별전형은 1차모집, 일반전형은 2차모집으로 보면 됩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학 · 문화학과
-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외국에서 유학이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 대학원 홈페이지 지 다문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 해외에 계시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면접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화상면접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시 교학처 문의 바랍니다.
-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교사실은 추후 공지)
- 8. 기타사항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 (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 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 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순수외국인/동문/교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4.(금)	2024.11.04.(월) ~ 11.15.(금)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2024.11.30.(토) 10:00
합격자 발표	2024.11.01.(금) 16:00 예정	2024.12.13.(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월) ~ 11.08.(금) 예정	2024.12.16.(월) ~ 12.20.(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학과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아플라이 Uwayapply.com)
-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회로 나왔지만 기댈 곳 없어... 서글픈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정부와 민간의 지원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에도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의 자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자립준비청

년의 개념과 현황△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보자.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현황

자립준비청년은 △공동생활 가정△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종료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최대 24살까지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무조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정부와 각종 민간 단체에서도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상황을 인식해 여러 가지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요 자립 지원은 △경제적 지원△심리적 지원△정서적 지원△주거 지원△진학 지원△취업 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제39조의 2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제도가 개선됐지만 이들의 효과는 미비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출신이란 점과 고졸이란 이유로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을 갖거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설령 보호기간을 연장해 대학 졸업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인기를 맞은 청년들의 기반과 비교하면 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위태롭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9천 958명 중 4천 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

자립준비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어려움 중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삶의 만족도와 교육 수준 등 전반적인 자립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세 평균 46.5%였다. 이 중 심각한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세 평균 18.3%로 조사됐는데 주된 이유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경제적 문제(28.7%)△가정생활 문제(12.3%)△학업 및 취업 문제(7.3%)가 제기됐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아동정책 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보호 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다”며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및 정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데 보호 종료 후 자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지원체제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광주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자살했고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천안에서 20세와 24세의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측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바탕으로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금△자립 수당 지급액△자립착검금이 인상됐고 자립 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실제로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유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28.0%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병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던 이유 역시 ‘진료비가 부담되어서’가 58.5%로 가장 컸다. 지파운데이션(GFOUNDATION)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인터뷰에서 세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부할 시간까지 줄이면서 일을 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선 더 적극적인 심리적 지원 방안이 담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영일 동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청년일보에서 “약간의 자립지원금만 쥐어준 채 시설 아동들을 사회로 떠미는 식의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훨씬 큰 만큼 금전적 접근보다 멘토나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보살피려는 절실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은미 전 국회의원은 헬스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심리 및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건강하게 자립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보호 종료 후 자립지원 관련 담당자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 자립 지원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처럼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5년 이내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이 두절돼 사후 관리망에서 벗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사후 관리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필요한 자원을 제때 제공받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 체계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호 유형별 격차 해소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선 그룹홈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시스템과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후원과 캠페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송기획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신재국 KBS 제작 1본부장은 청년일보에서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청년재단 이사장 또한 청년일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지원을 동반하는 사회관계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학지원서 신청 (인터넷)	2024년 9월 2일(월) 09:00 ~ 9월 6일(금) 17:00까지 · 접수기간 중 인터넷 원서 작성 24시간 가능, 마감일은 17:00까지 가능 · 인터넷 지원 후 반드시 지원서를 출력하여 교학과로 제출해야 함	
서류 제출	2024년 9월 2일(월) 09:00 ~ 9월 9일(월) 16:30까지 · 기간 중 09시부터 17시까지 접수가능, 마감일은 16시 30분까지 가능 · 서류제출: 토, 일요일 휴무	우편접수: 9월 6일(금) 소인 까지 유효
1차 시험	2024년 10월 19일(토)	
1차 합격자 발표	2024년 10월 30일(수) 17:00(예정)	시험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2차 시험	2024년 11월 2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11월 15일(금) 14:00(예정)	

◆ 모집학과

과 정	학과 (전공)	비 고
2개 언어과정 (8개 학과)	한영과	한영과(번역전공)를 제외한 모든 학과는 졸업시험 후 전공결정
	한영과 (번역전공)	
	한불과 · 한독과 · 한노과 · 한서과	
	한중과 · 한일과 · 한아과	
3개 언어과정 (7개 학과)	한영불과 · 한영독과 · 한영노과 · 한영서과	국제회의통역·번역전공 국제회의통역전공 통번역전공 중 택 1
	한영중과 · 한영일과 · 한영아과	

◆ 자격요건

-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독학사는 학위취득자에 한함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gsit.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무 1팀 통번역대학원 교학과(국제관 2층 208호) 입학담당자 앞

입시문의 02)2173-2433, 2435~6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정산 지연에 환불 중단까지,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불안 고조

최근 쿠팡(Qoo10) 계열의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Tmon)과 위메프(Wemakeprice)(이하 티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전자상거래 업체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쿠팡 계열사 측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태는 판매자들

의 운영 자금 부족과 물품 매입 어려움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원인△현재까지 제시된 해결 방안△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전자상거래 업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쿠팡 계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들에서 판매 대금의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및 입주 업체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플랫폼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리 부실이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에서 티메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8% 수준이다. 그러나 6월 쇼핑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쇼핑앱) 활성자 수 기준으로 889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약 6만 개의 업체가 티메프에 입점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소비자는 환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티메프 환불 지연 문제와 관련해 4일간 소비자 피해 상담이 4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티메프는 당초 30억 원 규모의 환불을 약속했으나 3분의 1만을 지급한 채 사실상 환불 중단을 선언했다. 임하영(서양어·이탈리아어 23)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품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최근 티메프 관련 뉴스를 접한 뒤로부터 전자상거래 업체 자체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입점 업체들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플랫폼 특성상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 대부분은 영세 업체이기에 약속 기일에 판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추산 결과 지난 5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2,74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판매자들은 서둘러 정산을 요구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티메프에서 약속한 날짜까지 정산이 되지 않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특히 업체에선 거래금액이 큰 디지털·가전과 여행 상품 항목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건일 태진컴 대표는 “5억 원 가량이 미정산돼 회사 운영 자금이 문제야 생겼다”고 전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원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티메프 측의 운영방식과 구조에 있다. 티몬은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마지막 날짜 기준 40일 뒤에 정산을 진행하며 위메프는 판매일 기준 2개월 뒤 7일에 정산한다. 유사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네이버 쇼핑(Naver Shopping)과 지마켓(Gmarket)의 경우 고객이 ‘구매확정’을 누르면 일주일 내로 정산이 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두 플랫폼 모두 정산이 늦는 편이다. 또한 에스크로(escrow)* 결제를 이용해 판매금액을 일정 기간 보관하다 안전하게 지급하는 ‘안전거래’ 방식과 달리 티메프는 고객의 구매대금을 직접 보관하고 정산한다. 검찰은 티메프 측이 구매자들의 결제 대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이를 일명 ‘정산금 돌려막기’에 사용했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특히 모기업 쿠팡이 물류 자회사 쿠팡익스프레스(QooExpress)를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는 것을 시도하며 부족한 자금을 티메프의 판매 정산 대금으로 대신하려던 것이 지적됐다. 실제로 쿠팡

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티메프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미국 기업 ‘위시(wish)’를 2,300억원에 인수하는 등 무리한 성장을 위해 무리한 기업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미흡한 대처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8일 티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태가 알려진 이후 티메프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일부 판매 회원들의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티메프의 입장문을 공정위가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일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부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업체 입장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즉 공정위는 티메프 측의 입장을 믿고 현장 실사 진행 혹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에야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공정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분명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제시된 해결 방안

이러한 티메프 사태에 대해 구영배 쿠팡 대표(이하 구 대표)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발표해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구 대표의 입장문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쿠팡 측은 △긴급 유동성 확보△입주 업체 지원 프로그램△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긴급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확보△ 쿠팡 자산 및 지분의 처분△해외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서도 양사에서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으며 지속해서 추가 피해 접수와 환불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지연 이자 지급 및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을 포함한 보상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정상화를 위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대금환불 의무△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환불 지연 또는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 및 민사소송까지도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 계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약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약 5,6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할 것이다”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또한 “티메프에서 발행된 상품권 발행사와 사용처에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전망은 어둡다. 대표적으로 11번가와 커리(kurly)의 경우 수년간 매년 1,000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 할부 결제가 있다.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신용 카드 회원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상품을 할부 결제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환불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운영 구조가 안전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하는 것 또한 소비자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티메프 사태를 통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자금력을 갖춘 전자상거래 업체로 고객들이 대거 몰릴 것이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이커머스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혁 역시 필수적이다. 티메프와 비슷한 오픈마켓(openmarket)** 형태의 수익 모델은 고객 유입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출혈 경쟁을 심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랫폼의 분리 운영 방안이 있는데 실제로 알리바바(Alibaba)의 경우 타오바오(Taobao)와 티몰(Tmall)을 분리해 플랫폼을 운영한다. 타오바오는 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이며 티몰은 대형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다. 카테고리과 규모에 따라 판매 업체를 분리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각 플랫폼이 각자의 강점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인도의 스냅딜(Snapdeal)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냅딜 역시 티메프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결제 시스템 개선△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판매 대금 선지급△정부의 금융 지원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실행한 바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크며 전자상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점에서 스냅딜의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쿠팡이 사업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스크로(escrow) 결제: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에스크로 서비스에 보관한 뒤 판매자 측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대금을 정산 받는 결제 방식.
**오픈마켓(openmarket): 플랫폼에 판매자들을 입점시켜 물건을 판매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운영 구조.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www.사사한줄토픽.com

정치 여야 대표 회담 성사

연임에 성공한 후 진행된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이하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하 한 대표)가 받아들였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될 회담에선 ‘채 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격차 해소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실질적 대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정치쇼가 아닌 민생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22일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회담은 연기된 가운데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사회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부조리 폭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했다. 안세영은 기자회견에서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많이 실망했다”며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단을 꾸려 사안에 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협회는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안세영이 올림픽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무엇이든 올림픽 끝나고 하라고 설득해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한편 안세영은 협회의 조사 요청을 거절하고 장미란 문제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235조 원 증발한 악몽의 월요일

지난 5일 코스피(KOSPI)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오후 2시경 코스닥(KOSDAQ)과 코스피의 거래가 연달아 중단됐다.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주식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하루에 두 번이나 발동된 것이다. 결국 코스닥은 11.3%, 코스피는 개장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인 8.77%가 하락한 채 마무리되었다.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 칩 블랙웰(Blackwell)의 설계에 결함이 발견돼 인공지능 무용론에 불을 지핀 것과 중동의 불안한 정세 및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오른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다음날엔 오히려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 매매 효과를 중단하는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융 시장의 과잉 반응 가능성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겠다”고 밝혔다.

국제 해리스에 배턴 넘긴 바이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진행했다.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한 후 한 달여 만이다.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미국을 위해 투표할 준비가 됐느냐”고 물으며 호응을 유도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해리스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해리스의 재임 기간 동안 폭력 범죄가 43%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쿡 폴리틱얼 리포트는 7개 경합주 지지에서 해리스 48%, 트럼프 47%로 해리스의 근소 우위를 예측했다.

일상 속 공포로 자리 잡은 전기차, 기술과 제도의 측면에서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전기차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8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거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다. 전문학적인 피해 규모와 배상문제는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전기차 포비아(Phobia)'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지원 조례 개

정△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유도△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 등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와 김병준 변호사(인과율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기차 폭발 문제의 원인과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김병준 변호사(인과율 법률사무소)

Q1. 최근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튬(Lithium) 이온 전기차 배터리의 폭발 사고는 주로 대부분 내부단락*에서 발생하는 열폭주로 인한 폭발이 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Q1-1. 전기차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과충전△배터리 결함△외부 충격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과충전에 따른 화재 발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전과충전으로 인해 전해질 용액에서 과도한 양의 리튬 이온이 한꺼번에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기저항에 의해 열폭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충전율이 100%라고 해서 반드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충률을 제한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는 시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1-2. 다음으로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리튬 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리튬 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분리막'이 존재합니다. 분리막에 결함이 발생하면 지나치게 많은 리튬 이온이 이동해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Q1-3. 마지막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에 손상이 생길 경우 상술한 분리막이 손상돼 열폭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용액에서 느리게 생성되는 작고 뿔뿔한 덴드리머(Dendrimer)* 결정이 분리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Q2.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장 많이 채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 용량이 충분히 크고 충전 및 방전 특성이 전기차에 사용하기 적절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Q2-1. 리튬 배터리의 한계와 그에 대한 기술적 보완 방법은 무엇인가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또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친환경성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Q3. 전기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바람직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에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므로 뾰족한 대안 또한 없습니다. 운행 중에 화재 발생을 인지하면 가능한 빠르게 주변의 자동차나 보행자가 없는 곳으로 차량을 정차한 후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내연기관차 역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확산 속도가 느리고 전기차보다 진화가 용이합니다.

Q4. 전기차 폭발 사고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화재가 급속히 퍼지고 독성이 강한 유해 가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추가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설비가 없으면서 주차된 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출입구의 층고가 낮은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Q5. 전기차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드시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바닥에 설치돼 있는 배터리의 외부 상태와 성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점검에 필요한 설비를 확충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Q5-1. 또한 개인 차원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역시 정기 점검 이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술과 제도를 갖 추기까진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전기차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의 진행 과정과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전기차 폭발 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우선 피해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이뤄집니다. 실제로 이번 청라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수백 건의 보험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엔 폭발 사고의 책임소재를 찾아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만약 전기차 차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차주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한편 해당 전기차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 피해접수를 받은 보험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책임소재를 밝힌 후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Q6-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폭발 사고의 보상 제도는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폭발 사고에 따른 보상 제도의 한계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단 사실에 기인합니다. △배터리 결함△사용자 과실△충전기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폭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업체가 배터리의 성능을 확실히 시험해 보증해야 하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Q7. 전기차 폭발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리게 되나요?

폭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엔 현재 시스템 안에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양측의 주장 및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됩니다.

Q8. 전기차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현재 전기차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에 신차를 출시할 때 자체적으로 △배터리 용량△전비△최대출력 등은 공개하고 있으나 배터리 제조사 및 제품명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Q8-1.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이번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에서 문제가 된 차량의 중국산 배터리는 해당 평가를 거친 적이 없고 이미 해외에서 대규모 리콜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구매를 소비자들이 지양할 수 있도록 배터리 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해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나 해당 제도를 통해서도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실명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단락: 셀 내부에 쌓여있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해 강한 화학 반응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

**덴드리머: 나무의 형태를 닮은 가지가 수없이 많은 삼차원 상태의 새로운 개념의 고분자 구조를 묘사적으로 일컫는 용어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내 꿈은 야구선수였다. 이른바 ‘추강대업’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 △추신수△강정호△이대호△이승엽을 능가하는 야구선수가 되어 우리나라가 더 인정 받게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의 나는 매일같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한 친선 경기에서 당한 발목 부상 이후 다시는 전과 같은 기량을 낼 수 없었고 난 순식간에 더그아웃만 지키는 신세로 전락했다. 처음에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나를 다시 기용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지만 문득 팀에서 더 이상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 기량이 떨어진 선수가 설 자리는 없었다.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게 내 역할이 됐고 결국 난 야구선수라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신발과 보호대를 후배들에게 물려줬지만 꿈을 물려주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가끔씩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방망이를 혼자 허공에 다 휘두르곤 했다. 길을 걷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실점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 타구를 잡아내고 있었다. 마주 오는 사람을 향해 강속구를 쫓아 삼진을 유도했다.

이후 난 방망이와 글러브 대신 책과 펜을 잡았고 대학에 들어왔다. 하지만 예전의 열정과 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짝임 대신 무기력만 남은 눈을 반쯤만 뜨고 꿈도 목표도 없이 학교와 집을 오고 가가만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내게 어느 날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다. TV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모습이였다. TV를 틀면 언제나 나를 법한 따분한 뉴스였지만 왜인지 난 나도 모르게 넋을 놓고 화면을 보고 있었다. 파란색 배경의 뉴스룸에서 앵커가 간략히 소식을 전하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이어받아 자세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 모습에 알 수 없는 동경을 느낀 나는 그날부터 기자가 되기 위해 언론계 취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관련 전공도 아니고 아무런 정보도 없던 내게 ‘외대학보 수습기자 모집’이라는 큼직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기자의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서류 전형부터 필기시험과 면접까지 거쳐 수습기자로 들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어느새 차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이런저런 기사를 쓰고 있다.

난 구단의 필요에 따라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현실의 냉정한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좌절은 10대의 소년에게 받아들이기엔 꽤나 버거웠다. 20대 청년이 된 지금도 가슴 한 켠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 스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롯데 자이언츠의 윤동희△한화 이글스의 문동주 등 2003년생으로 나와 동갑인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되고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활약할 때면 난 뼈근한 발목을 내려다보며 많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청년이 된 그 소년은 현실의 벽에게 굴복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웠다. 세상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지만 가질 수 없다면 가끔은 체념하는 법도 배워야 할 일이다. 지는 법을 알지 못할 때 도전은 무모함이 된다. 그러니 가끔은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발을 내딛는 건 어떨까.

백승준 기자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읽고] 변화를 마주하는 용기

우리의 삶은 다양한 변화들로 구성돼 있다. 내일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들에 잘 대처하고 있을까? 변화가 낯설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과연 우리 중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책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책에는 총 4명의 주인공이 있다. 이들의 이름은 △스니프(Sniff)△스커리(Scurry)△허(Haw)△헴(Hem)인데 스니프와 스커리는 생쥐이고 헴과 허는 꼬마 인간이다. 미로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치즈 창고 C에서 매일 맛있는 치즈를 먹으며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 어느 날 거지밭처럼 창고에는 모든 치즈가 사라졌고 이러한 변화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우선 스니프와 스커리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기에 다시 새로운 창고와 치즈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다. 반면 꼬마 인간 헴과 허는 새로운 사태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굶주림이 계속되자 허 역시 생쥐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 치즈를 찾아 미로를 탐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헴은 새로운 길에서 마주할 실패를 두려워하며 새 치즈를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이 명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안락한 생활을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다. 끝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까지 변화를 거부하던 헴 역시 자신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자 새로운 치즈를 찾고자 변화를 받아들인다. 결국 주인공들은 모두 기존에 살던 미로 밖으로 나와 새 치즈를 발견하는데 성공한다.

책을 읽고 난 후 책 속에서 등장하는 ‘미로’와 ‘치즈’가 현실 속에서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다. 미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즉 △가정△직장△가 소속된 모임△직장 등을 상징하는 것 같다. 또 치즈는 △건강△영구적인 평화△인간관계 등을 나타내는 것 같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치즈’는 우리가 살면서 수 없이 마주치는 변화의 순간을 상징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변화를 마주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거나 외면한다. 하지만 ‘사라져 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책의 문구와 같이 우리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때 비로소 성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전수한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평소 자신이 새로운 변화를 마주할 때 4명의 주인공 중 누구와 가장 비슷한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이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영화 ‘사랑을 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보고] 그래, 난 자기를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않아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날씨가 쌀쌀해지면 항상 끌리는 장르가 있다. 바로 로맨스다. 여름이 끝나가는 요즘 어김없이 제목에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고르던 중 ‘사랑’과 ‘최악’ 두 단순적인 단어들의 조합에 매료돼 이를 저절로 재생각하게 됐다.

주인공 ‘율리에’(Yulriye)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본인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물이다. 작품은 율리에를 중심으로 코믹(Comic) 작가 ‘악셀’(Axel)과 카페 직원 ‘에이빈드’(Abind) 간의 사랑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사나 사진작가 등 직업을 바꿔 나가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율리에지만 사랑의 감정에선 쉽사리 그렇지 못한다. 나는 초반 율리에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으로 자기에 부족을 떠올렸다. 진정 사랑을 하기 위해선 ‘자기에’라는 토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선 사랑을 향한 어떤 노력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자기에만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준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하고 꿈꿨던 사랑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긍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세상 최악의 인간(The worst person in the world)’이란 원제에선 20대 후반 여성의 심리묘사와 함께 새로운 이성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미묘함을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란 우리나라 개봉판 제목을 보면 ‘누군가 인정 대명사 덕분에 최악의 사랑의 범인을 찾으려고 했다. 영화 속에서 율리에에는 타인과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을 받는다. 너는 뭐 하고 싶은데?’ 혹은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와 같은 질문들을 받는 율리에에는 ‘모르겠

다’라고 답한다. 영화 내내 율리에에는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 사람에게 대해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하고 사진 찍는 게 좋아 사진도 찍어본다. 하지만 어떤 것에서도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 늘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곧 바뀐다. 이런 율리에의 모습을 통해 이 영화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묻는다.

관객 모두가 율리에가 영화 속에서 하는 결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저 율리에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 입시의 재도전으로 인해 1학년 삶을 못 누렸다는 왠지 모르는 억울함과 아쉬움 때문에 이번 1학기를 1년같은 6개월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이후 내가 여태 해보고 싶었던 스기아△영화 제작△창업 등 여태 관심있던 분야를 경험해봤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 하고 있다. 즉 나도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아마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나가며 평생 고민하지 않을까.

율리에의 선택이 충동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에 으레히 충실했다. 고민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실패와 후회의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곧바로 선택하고 경험한다. 율리에도 나도 조금은 과감한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나가지만 결국 많은 경험과 도전으로 쌓아올린 시간들이 모두 자아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4년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역 2024년 2학기 외대학보 1095~1099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모집기간 8월 29일(목)까지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문의 서울캠퍼스 김민서 기자 010-7139-9402 / 글로벌캠퍼스 강예원 기자 010-8827-9917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시작과 끝의 공존, 그 불타는 아름다움을 향해

부장으로서 새로운 학보 생활을 시작해 첫 마감까지의 일정이 지나갔다. 지난 학기 편집장과 부장의 고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지라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108기 기자들과 방중교육 내내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109기 기자들 덕에 부담보단 즐거움이 더 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학보의 시간을 즐기며 이번 109호에선 외대학보 기자들이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 살펴봤다.

먼저 4면에선 총학생회 산하 특별자치기구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총학생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총학생회 산하에 다양한 특별자치기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기구가 재인준 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도서관학생위원회와 영상사업단의 재인준 부결 사례를 통해 △소통 문제△운영 방안의 불명확함 △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별자치기구가 학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이들 기구의 운영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

5면에선 우리학교 군 E-러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군 E-러닝은 장병들의 커리어(career)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지만 △강의 수의 부족△대면 시험 문제 △홍보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가 지난 학기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 사업을 실행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앞선 이유와 같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에 △학교△학생△교수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7면에선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며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명하고 있다. 매년 2,000명에 육박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뿐이다. △민간 단체△정부△자기자체가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자립청년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한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8면에선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티메프이기에 이 사태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에 소비자 및 임점 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과 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주의와 사업구조 전반의 개혁 등 경각심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의 학보 생활과 캠퍼스 생활도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지금의 순간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즐겁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학생 여러분과 우리 외대학보 기자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찬 부장 08byeongchan@hufs.ac.kr



사설

침묵하는 것이 아닌 기다리는 것

총장 선거까지 약 1년 남은 지금이다. 이와 관련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학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특히 법인의 '총장후보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공문 이후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간선제로의 재이행'에 대한 염려가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많은 학내 구성원들은 외대학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학내 유일 공식 언론기구인 외대학보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것이다'란 기대감에 근거하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강호엔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실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외대학보를 향한 수많은 잡음이 외부에서 들려온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학내 유일 공식 언론기구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러 독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면 함부로 펜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

흔히들 언론을 향해 '펜은 총보다 강하다'란 수식어를 붙인다. 그러한 관점에서 외대학보가 가진 펜은 학내 그 어느 기관이 들고 있는 펜과 총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이 없다면 혹은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외대학보는 그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가 휘두르는 펜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그 어떤 사안이라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그리고 낼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필화(筆禍)를 입더라도 말이다. 이는 주간교수와 편집장을 포함한 모든 외대학보 구성원의 의지이자 우리의 소명의식이자겠다.

그런 한편 '보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명을 비추겠다. 하나의 큰 사안으로 학내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쏠린 지금, 보이지 않는 사안들은 우리마저 없으면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리라. 이러한 의식에서 이번엔 △군 E-러닝△자립준비청년△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사안을 다루게 됐다. 위의 사안들 모두 우리 사회의 조명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둔 사안들이지만 꼭 다뤄야 했던 이야기였다.

외대학보는 언제나 우리학교의 주요 사안과 함께해왔다. 그리고 권력의 감시견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학내 모든 권력을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는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침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독자들도 믿어줬으면 한다. 우리가 조용한 것은 '침묵하는 것이 아닌 기다리는 것'이다란 것을.

·남우현 편집장 07woohyu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2학기 화이팅~

-익명-

이번학기 과제 좀 덜 내주세요

-익명-

여름 너무 더워 에어컨을 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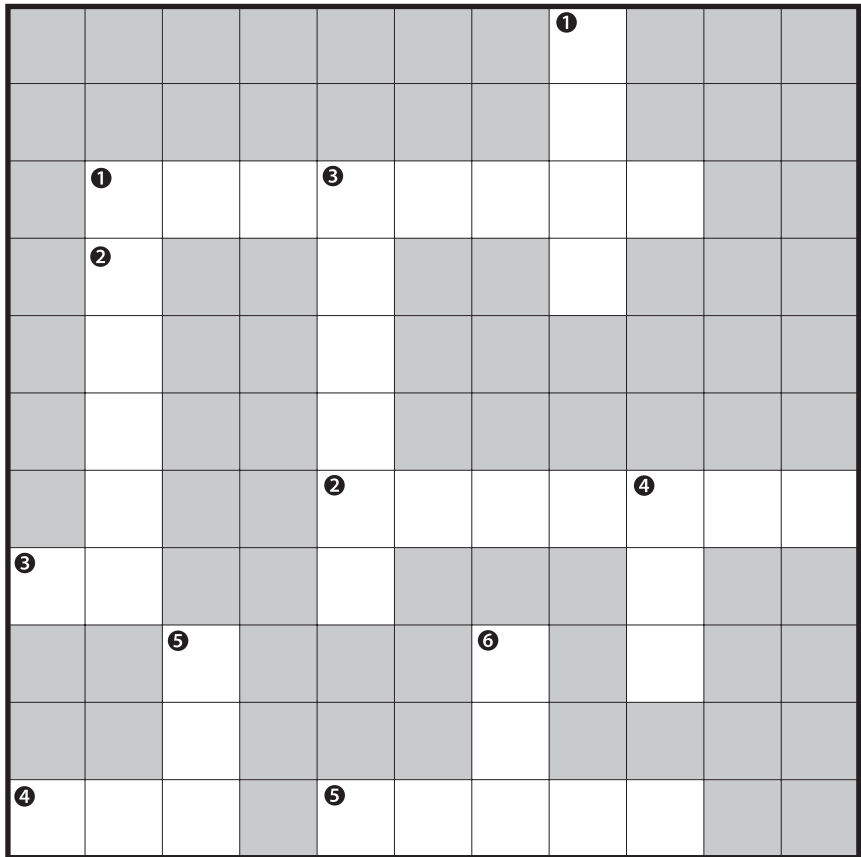
-익명-

열심히 할게요 교수님 사랑해주세요

-유민-



십자말풀이



가로

- 우리학교 00000000분부는 기업체 인사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1면)
- 우리학교 지역특화 00000000 양성사업단은 MFB 2024에 참가했다. (1면)
- 00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3면)
- 최근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두 전자상거래 업체를 부르는 말 (8면)
- 영어과 84학번 구동희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12면)

세로

-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제도 (5면)
- 우리학교는 제2주기 000000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2면)
-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되다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7면)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9면)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도널드 000이다. (8면)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카멀라 000이다. (8면)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시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7woohyu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남우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국내 스포츠 영웅들의 조력자

구동회

‘올댓스포츠(All That Sports)’ 대표이사를 만나다

구동회(영여 84) ‘올댓스포츠(All That Sports)’ 대표이사(이하 구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스포츠 매니지먼트(Sport management) 회사인 올댓스포츠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올댓스포츠는 △2010 밴쿠버 올림픽△2014 소치 올림픽△2018 평창 올림픽△2024 파리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기여했다. 국내 스포츠 영웅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온 구 대표의 발자취를 알아보자.



Q1. 우리학교 영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진학 당시 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영어과에 진학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입학하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한 경험이 첫 직업인 기자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영문과가 아니라 영어과였기에 언어 공부를 할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덕분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학교 동문들이 신문방송 계열에 많이 진출해 있는 점도 기자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Q3. 대학시절 했던 활동 중 현재 업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 활동은 무엇인가요?

대학시절 학회에서 공부했던 사회과학 및 인문학적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타임(TIME)지 스타디였습니다. 타임지의 과학이나 역사 칼럼을 읽으면서 갖고 닦았던 영어 실력과 함께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지식은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공 수업에서 읽었던 문학 작품들 역시 보탬이 됐어요.

Q4. 기자로 재직하며 겪은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포츠 조선’에서 체육부 기자로 재직하다가 ‘스포츠투데이’의 축구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2년 월드컵 시기의 경험인 것 같네요. 당시 제가 축구 팀장이었는데 한 달 동안 신문사 옆 호텔에 묵으며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까지 월드컵 신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때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경험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줬어요. 과로로 응급실에 가기도 했었는데도 기자를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만큼 만족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

Q5. 기자로서의 경험이 오늘날 기업인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체육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연수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의 브라이튼 대학(University of Brighton)에서 스포츠 미디어 관련 학과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왔죠. 1년 후 한국에 돌아오니 미디어 상황이 매우 달라져 있었어요. 무가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기성 신문 업계가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스포츠 신문들이 거의 다 폐간되며 전망이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제안했고 그때부터 스포츠 마케팅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기자 생활의 경험은 의사소통과 인맥 측면에서 기업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다방면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거래처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기자가 가진 인맥이 훨씬 광범위한단 점도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6. 스포츠 마케팅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다양한 업무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 매니지먼트가 있죠. 그 외에도 경기 단체의 마케팅 대행사로서 해당 단체들의 후원 및 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행사 개최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스쇼(Ice show)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 관련 방송을 기획하거나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Q7. 스포츠 매니지먼트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땀던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금메달을 빼앗겼단 얘기가 있었던 소치 올림픽도 다른 의미로 기억에 남네요.

Q8. 대표이사로서 기업의 운영 철학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회사 이름이 ‘스포츠의 모든 것’이란 뜻인 만큼 종목들 가리지 않고 많은 인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마케팅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 비해 발전이 느리다 보니 선수들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 경향이 있었어요. 선수들 본인의 가치에 비해 실제 인정받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미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수생활 중과 은퇴 이후에 본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9.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올댓스포츠 소속 선수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력 측면은 △감독△경기단체△선수 본인△코치△트레이너의 몫이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 회사의 역할은 상당히 적습니다. 대신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미디어와 관련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 저희가 선수의 대변인 역할도 수행하고 인터뷰 일정도 조정합니다. 일반 국제 대회인 경우 후원사들의 노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경기 전 식단 및 훈련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충해주는 등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Q9-1. 언제부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지원을 시작했나요? 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관련된 일화도 궁금합니다.

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역시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당시엔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죠.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활성화가 된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나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마이클 조던(Michael Jeffrey Jordan)과 데이비드 베컴(David Robert Joseph Beckham)은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덕에 후원 계약과 연봉 계약이 몇 천억에 이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거든요. 김연아 선수를 시작으로 인기 선수들이 광고 모델로도 섭외되면서 이들의 가치가 더 극대화 됐습니다. 그 결과 김연아 선수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광받는 광고 모델로 손에 꼽히죠.

Q10. 오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올댓스포츠 차원에서의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오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는 △쇼트트랙(short track) 최민정△스켈레톤 정승기△피겨 스케이팅 신지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특히 스노보드 하프파이프(Snowboard Halfpipe) 종목에 출전하는 최가은 선수와 이승훈 선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가은 선수는 미국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스타인 클로이 킴(Chloe Kim)과 겨루게 될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되네요.

Q10-1. 해당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에

겐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말했듯 저희는 경기력보다는 미디어적인 부분과 선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림픽의 경우 인터뷰 요청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데 해외 매체에서 인터뷰가 들어오면 매니저들이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종목별 경기장이 멀리 떨어져 있고 썰매 경기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창올림픽 때에도 △강릉△평창△횡성 등 경기장이 여러 곳에 떨어져 있어 이런 부분에서 매니저들이 도움을 많이 줬던 기억이 있네요.

Q11. 마지막으로 스포츠 매니지먼트/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학교는 외국어 중점 학교다보니 학내에 스포츠 분야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외로 정말 많은 동문들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 특강을 가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스포츠만큼은 범접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물론 훈련이나 선수의 신체능력 측정엔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지만 결국 스포츠를 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인공지능이 스포츠의 모든 영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스포츠 마케팅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은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무엇을 전공하든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이란 점에서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어요. 스포츠 마케팅에 종사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 둘째는 영어 능력을 갖출 것. △EPL△MLB△(L)PGA처럼 국제 대회가 활성화돼있는 이 업계에서 해외 쪽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센스를 기를 것. 경영학 중 마케팅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동종업계 선배들도 많으니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